염상섭 장편소설『효풍』연구

강 영 훈*

〈차 례〉

1. 서론
2. 해방공간 속 민족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
3. 신식민지 도래 위험에 대한 경계
4. 민족적 주체성의 발현
5. 결론

1. 서 론

우리 근현대사에서 해방은 가장 뚜렷한 분기점 가운데 하나이다.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까지 대략 5년간의 기간은 한국 역사에서 보기 드문 격변의 시대였다. 해방과 동시에 미국과 소련의 주도하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겪었고 결국 그들의 이해관계로 삼팔선이 확정되었으며, 민족과 국토가 분단되어 두 개의 국가가 설립되었다. 이런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문학사도 보기 드문 혼란과 갈등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문학과 문인들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지점에서, 일제 강점기부터 사회를 꿰뚫는 통찰력을 가지고 소설 속에

*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BK연구원

현실을 극명하게 반영했던 작가인 염상섭에게 이 질문의 답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해방 이후, 좌우의 이데올로기 갈등이 심화되고 문단마저 정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염상섭은 좌익과 우익,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통일된 민족국가 설립을 주장하는 민족주의 노선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염상섭에 관한 연구 성과가 상대적으로 해방공간[1]의 작품에 대해선 미흡한 점이 사실이다.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시기와 작품이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기적으로 일제 강점기에 치우쳐 있고 장편 연구 또한 『만세전』과 『삼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작품에 대한 연구 성과가 일제 강점기의 작품에 비해서 현저하게 미비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공간의 염상섭 문학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공감한 바 있다. 문학사 자체가 해방공간이라는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이 시기 연구가 미비하였고 이러한 영향으로 개별 작가에 대한 연구 또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효풍』에 대한 연구 또한 마찬가지이다. 1974년 학계에 그 존재가 알려진 후 1996년까지 20여 년 간 이 소설에 대한 단 한 편의 연구 논문도 발표된 적이 없을 정도로 작품이 가지는 문학사적 가치에 비해 그동안 외면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2] 『효풍』의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세 가지로 추측된다. 첫 번째는 『효풍』이 신문연재소설이었

1) 해방 이후의 시기에 대한 용어는 '해방 직후', '해방 공간', '해방기', '미소군정기', '해방 3년' 등 다양하지만 이런 용어들 속에서 가장 문학적인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해방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해방공간은 통상적으로 1945년 해방 이후 분단국가가 성립되는 1948년까지를 가리키는 용어이지만 넓은 의미로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로 규정되기도 한다.

2) 장진선, 『염상섭 <효풍>의 여성인물에 관한 연구 - 제3세계 페미니즘적 관점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참조.

고 단행본이 출간되지 않아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연구가 많이 되었던『삼대』나『취우』또한 연재소설이었지만 단행본으로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용이했을 것이다. 실제로『효풍』단행본이 출간된 1998년 이후, 연구가 활발해짐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추측은 작품 내에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는 좌익에 대한 인정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데올로기에 대해 비교적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게 된 90년대 이후『효풍』의 연구 또한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억압이 거셌던 특수한 역사적 상황 아래 염상섭의 전체적인 문학 연구 또한 일제시기와 1949년 후반 이후의 문학에 대해서만 언급되었다고 판단된다.[3] 마지막으로, 염상섭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결과가 해방공간 이후의 작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염상섭 특유의 문학적 의식이『삼대』를 기준으로 하는 초기에 비해 해방공간 이후로는 약해졌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인식은 상대적으로『효풍』에 대한 연구가 소홀해지게 만들었다.

본 논문의 가장 큰 문제의식은 이러한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에서 비롯한다. 염상섭의 문학적 사명은 일제강점기에 국한된 것이고 그의 시대인식은 해방공간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기존 연구에 대해서는 검토의 필요성을 느낀다. 해방공간의 염상섭 소설이 우리 문학사와 그의 문학세계에서 특징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시기의 소설 연구는 그의 연구가 양적·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러한 인식 아래, 시기적으로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점차 해방공간 이후의 작품으로 연구 범위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근래의 연구들은 염상섭이 실천했던 민족적 정체성 확립과

3) 김재용,「8·15 이후 염상섭의 활동과『효풍』의 문학사적 의미」,『효풍』, 실천문학사, 1998, 341쪽.

민족 국가 설립에 대한 의지에 주목하여 해방공간의 소설을 재평가하고 있다.

『효풍』의 연구는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작가의 이념성을 밝히는 연구[4], 등장인물들의 현실인식과 이념대립에 관한 분석을 통해 『효풍』의 문학사적 의의를 밝히는 연구[5], 『효풍』의 문체론적 연구[6] 등이 있다. 또한 비교적 최근에 나온 『효풍』의 연구는 그 주제적인 측면에서 다양성[7]을 갖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효풍』의 연구가 점차적으로 활발해지고 그 주제적인 측면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아직까지 많은 논의들이 양산되고 평가 또한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고 논란이 되는 의견들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4) 조남현, 「1948년과 염상섭의 이념적 정향」, 『한국현대문학연구』 6집, 한국현대문학회, 1998.
서형범, 「염상섭 『효풍(曉風)』의 중도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고찰」, 『한국학보』 30집, 일지사, 2004.

5) 김재용, 「염상섭과 민족의식 - 『삼대』와 『효풍』을 중심으로」, 『염상섭 문학의 재조명 - 염상섭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논문집』, 문학사와비평연구회, 1998.
_____, 「분단을 거부한 민족의식 : 8.15직후 염상섭의 활동과 『효풍』의 문학사적 의미」, 『국어 국문학 연구』20집, 원광대학교 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회, 1999.
김정진, 「『효풍』의 인물 형상화와 그 기법」, 김종균 편, 『염상섭 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8.
김병구, 「염상섭 『효풍』의 탈식민성 연구」, 『비평문학』 33집, 한국비평문학회, 2009.

6) 정호웅, 「냉소와 풍자」, 김종균 앞의 책.
조남현, 「국어 사랑, 시대의 한복판을 뚫은 명작의 버팀목」, 『새국어생활』 11권 3호, 국립국어연구원, 2001.

7) 장진선, 앞의 논문.
조형래, 「『효풍』과 소설의 경찰적 기능 - 염상섭의 『효풍』 연구」, 『사이 (SAI)』 3집,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7.
서준섭, 「염상섭의 『효풍』에 나타난 정부 수립 직전의 사회, 문화적 풍경과 그 의미」, 『한중인문학연구』 28집, 한중인문학회, 2009.

면『효풍』의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문학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양질의 차원에서 염상섭 연구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효풍』이야말로 염상섭의 삶과 문학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작품이라 생각된다. 염상섭은『효풍』속에서 시대의 진단과 현실에 대한 경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처방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효풍』속에 나타난 해방공간 사회의 반영과 처방은 어떠했으며, 그것을 통해 드러난『효풍』의 가치와 문학사적 의의를 재검토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2. 해방공간 속 민족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

『효풍』은 염상섭 개인에게도 의미가 있는 작품일 것이다. 일제강점기 시대 그의 대표작으로『삼대』를 꼽을 수 있다면 해방 후에는『효풍』을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로 해방직후 민족 현실을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점은 해방공간 속 우리 사회에 존재 할 법한 다양한 인물 양태를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다. 민족 현실은 등한시하면서 본인의 이익만을 챙기는 부류들의 등장으로 사회는 점차 혼란에 빠지게 된다. 특히 친일 잔재 청산의 미결로 인해 반민족적 행태를 보이는 인물유형과 해방공간의 혼란을 틈타 등장한 속물적인 인간유형에 대해서 염상섭은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미군정청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기구가 남한을 효율적으로 지배하는데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통치기구와 조선인 행정관리들을 그대로 인계받아 통치했다. 그리하여 과거의 친일관료·경찰·지주 등 반민족적 인사들이 재등용되었다. 질서 유지와 효율적 통치라는 명분으로 실시된 미군정의 정책은 친일세력에게 계속해서 유리한 입지를 마련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반역사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리하여 일제 치하에 순응하고 친일 행각을 벌인 인물들이 해방이 되어서도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그들은 과거 행적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과거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리워하기까지 한다. 『효풍』속에서 가장 먼저, 친일 잔재 청산 미결의 문제를 투영시킨 인물은 일본인 가네코의 남편 임평길이다.

> 하여간 판 풍파 있었으나 조선아이에게는 아직 징병 징용이 없던 때라 그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던지 창씨통에는 이름만은 고쳤어도 성은 제대로 지니고 있을 수 있던 임평길이는 길야평길(吉野平吉)이가 되어 가네마스의 양자사위가 되어 들어갔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 입적(入籍)을 하지 않았던 관계로 일본인으로서 징병에 끌려가지도 않았고 조선에서 징병 징용이 실시될 때도 장인 덕에 빠져서 콧노래를 부르며 팔자좋게 잘먹고 자빠져 있었다.
>
> "그래 친일파 반역자 소리는 안 듣나요?"
>
> "그렇지 않아도 한때는 저 매담두 불려다니고 하마터면 이 집을 뺏길 뻔했다네. 하지마는 그만한 이쁜 계집이 있겠다 — 이런 시절에는 이쁜 계집이 있는 것도 한 무기거든. 게다가 제 손으로 만드는 요리가 있지 않은가?……"
>
> "헤에, 그래요?"
>
> 혜란이는 저절로 코웃음 섞인 탄식 비슷한 소리가 나왔다.
>
> "그뿐인가! '길야'라는 성을 떼어버리고 임가(林家) 행세를 하면 다시 훌륭한 조선사람 아닌가! 양애비나 장인의 재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조선사람으로서 적산(敵産)을 처맡았다는데야 그만 아닌가."[8]

가네코의 남편 임평길은 해방 이전에 가네마스의 사위가 되어 징병이나 징용에도 나가지 않은 일본인 생활을 해왔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로

8) 염상섭, 『효풍』, 실천문학사, 1998, 32~33쪽, 이하 쪽수만 밝힌다.

몰리지만 아내 가네코의 처신으로 이를 모면하고 지금까지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친일 행위를 한 인물이 오히려 '적산'까지 차지하면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물들을 표현함에 있어 인물간의 대화 속에 작가의 냉소가 엿보인다. 임평길의 이야기를 듣는 혜란은 "저절로 코웃음이 섞인 탄식 비슷한 소리를 내며" 반응한다. 냉소적으로 묘사한 점에서 이러한 인물 유형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을 엿볼 수 있다.

친일 잔재 청산의 미결로 또 다시 자신의 이득을 채우기 위해 외세와 결탁한 부류의 인물인 박병직의 아버지인 박종렬도 같은 부류의 인물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일제 때 도의원을 지냈으며 해방 후에 친일파였다는 과거 자신의 행적에 대한 조금의 반성도 없이 새롭게 들어온 미국이란 외세에 빌붙는다. 그는 일제하인 구식민지에서 반민족적 행동을 했으며 해방 후 신식민지 상황에서도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하면서 민족적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박종렬은 구식민지에서 반민족적인 행위를 하다가 신식민지적 상황에서도 조금도 변화 없이 구태를 지속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 이 영감은 자기 아들이 빨갱이 냄새를 피우고 붙들렸다는 것이 가문이나 더럽힌 듯이 싫은 데다가 예전 도의원 시절에 고관대작(高官大爵)과 어울리던 한때의 꿈이 아직도 머리 한구석에 남아 있기 때문에 몸소 가서 머리를 굽히고 청촉을 하기는 차마 싫다는 관료적(官僚的) 만심으로 해서 무사히 풀려나올 요행을 기다리고 있는 터이다.(77쪽)

또한 박종렬은 구시대적 봉건적 사상까지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의 고위 관리와 연계되어 있는 그에게 빨갱이로 오인 받아 유치장에 갇힌 아들을 빼내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

나 박종렬은 과거 도의원 시절의 드높은 콧대를 회상하며 머리를 굽히고 청탁하는 것을 꺼려한다. 과거의 친일 행적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과거의 영광으로 회상하고 있다는 것은 친일 잔재 청산이 얼마나 해결되지 못했는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부분이다.

구식민지 시대부터 반민족적 행위를 했던 박종렬과는 달리 해방 후 신식민지 세력인 미국을 등에 업고 새롭게 나서는 부류들이 생겨난다. 이진석이 이러한 부류의 인물군 중 한 명이다. 경요각 주인인 이진석은 일제 하에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박종렬과 같이 구식민지에서 반민족적 행위를 했던 사람은 아니다. 신식민지 상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력을 적극 활용하여 새롭게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미국에서 한 밑천을 잡아온 그는 미국사람과의 교제를 위해 골동품 가게인 '경요각'을 차리고 그것을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업을 하여 돈을 버는 사람이다. 미국에 빌붙어 자기의 잇속을 채우면서 민족의 미래나 운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전형적인 반민족적 모리배이다.

서양 사람들을 붙들기 위해 차린 경요각에 영어를 할 줄 아는 혜란을 고용한 것도 미인을 미끼로 하여 미국인과 교제를 해볼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미국인이 느끼는 동양적 여성에 대한 이국적 매력을 미끼로 이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까지 나아간 것을 보면 나름대로 국제정세와 미국인에 대한 치밀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전형적인 속물적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베커가 혜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을 알고서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그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한다.

> "솜, 생고무, 종이 — 우선 급한대로 이 세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같은 양심적으로 무역을 해보겠다는 사람에게 내맡겨 주었으면 구급이 될 뿐 아니라 이런 혼란은 면하겠는데 — 정부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한다든지 보호감시를 하는 것은 좋으나 요새같이 모리배의 패에 넘어가서야 이거 큰일 아닌가요?……”

이진석이가 초면인 미스터 베커를 붙들고 하는 이야기가 대개 이러한 종류의 수작이었다. (…중략…) 이진석이로서는 이 미스터 베커 같은 진객에게 골동품을 하나라도 팔아먹겠다는 배짱보다는 베커가 무역, 산업관계의 기관에서 일을 본다는 바람에 이게 웬 떡이냐고 천재일우의 호기나 만난 듯이 본업(本業)은 집어치우고 장광설을 늘어놓는 것이다.(12쪽)

이진석은 베커의 환심을 살 수 있다면 “시가로 십만 원 하는 백자동병풍 하나쯤 선사를 해도 좋다”(14쪽)고 생각한다. 미국인 베커의 환심을 사는 것은 곧, 새로운 권력관계와의 연줄을 형성하는 것이다. 미군정 지배하에 놓여있는 남한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몫을 크게 챙기기 위해서는 무역을 하는 미국인의 환심을 사는 일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이진석은 바로 이러한 인물을 형상화한 것이다. 민족의 현실에 대한 관심과 걱정보다는 오로지 본인의 이득을 위해 고심하고 행동하는 속물적 인물이다.

“그만두세요. 결국에 베커를 이용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버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없다고 안 될 일 아니겠고 나까지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잊어버리세요.”

혜란이는 당돌히 까놓고 말을 하였다.

“그게 무슨 말씀요?” 하고 진석이는 펄쩍 뛰다가,

“내가 백만 원 벌면 오십만 원 드리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었지마는 하여간 혜란 씨! 김 선생! 날 좀 도와주슈! 혜란 씨가 그만두면 나두 문닫을 생각요. 당신이 그만두신다면 사업두 사업이려니와, 난 경요각을 혼자 경영할 재미도 용기도 없으니까!”(163쪽)

또한 이진석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족과 본인의 자존심까지

버리는 인물이다. 진석의 첩이 혜란에게 실수를 하자 혜란은 경요각을 그만두려 한다. 하지만 진석에게 혜란은 베커에게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녀를 포기할 수 없다. 그의 첩을 시켜 혜란에게 사과를 하게 하고 본인도 혜란을 적극적으로 붙잡는다. 자존심과 지위를 중요시했던 박종렬과는 조금은 다른 점을 보인다.

이러한 유형의 또 다른 인물은 장만춘이다. 장만춘은 일제 말에 영어 선생을 하여 혜란에게 영어도 가르친 바 있는 전직 교사로서 현재는 거간꾼 노릇을 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인물이다. 해방 후의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해방덕'을 보려고 혼자 들떠서 나돌다가 지금은 이진석과 같은 젊은 사람의 거간꾼 노릇을 하면서 산다. 영어를 이용하여 한몫 잡으려다가 겨우 통역으로 연명하는 구차한 삶으로 떨어진 인물이다.

> "선생님은 왜 그만 두셨어요? 지루하시기는 하겠지만 그래 학교보다 지금 다니시는 데가 나으세요"
>
> "사실 교원생활에 멀미도 나고 해방바람에 나두 엉덩이가 들먹거려서 나서 본 것이지마는 하나 어디 마음대로 되던가? 첫째 제 밑천 없이 손에 걸리는 거라곤 없고 결국 이 지경으로 젊은애 꽁무니나 따라다니며 형사 비슷한 일이나 거간꾼이지 별수있나? 허허……"
>
> "왜 그런 말씀은 하세요. 선생님 같으신 양반이 인제 정말 한참 활동해 주셔야죠."
>
> 혜란이는 입으로는 이렇게 위로하면서도 왜 학교를 그만두고 그따위 데로 들어갔는지 장 선생의 당돌한 짓이 한편으로는 미웁기도 하였다.(16쪽)

장만춘이라는 인물에서 알 수 있듯이 혼란스러운 사회를 틈타 새로운 지배권력 아래 한몫을 챙기려는 인물들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닌 듯 보인다. 장만춘에게는 '선생'이라는 번듯한 직업도 있었고 새로운 지배체

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영어'라는 무기 또한 있었다. 실제로 그러한 시류 속에서 본인 또한 큰 뜻을 품고 나왔지만 결국에는 구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학교를 그만두고 그따위 데로 들어갔는지 한편으로는 미웁기도 하였다"는 혜란의 속마음은 이러한 인물 유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염상섭의 마음을 대변하기도 한다.

이처럼『효풍』에는 민족의 미래와 운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잇속과 영화를 꿈꾸면서 하루하루를 생활해나가는 인물들의 다양한 모습이 실감나게 그려져 있다. 또한 이러한 인물 유형을 바라보는 혜란의 태도에서 작가 염상섭의 생각 또한 엿볼 수 있다. 혜란의 눈에 비친 이진석의 첫인상은 "굵다란 금시곗줄이나 늘이고 헐레벌떡 돌아다니는 주식점(株式店) 중개인이랬으면 알맞겠다는 인상뿐이기 때문에 첫눈에 그 밑에 일하기는 싫다고 생각했다"(『효풍』, 41쪽)고 표현 되고 있다. 한몫 챙겨 보려고 선생직을 그만두고 거간꾼으로 전락해 버린 장만춘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부정적이다. 이들은 이러한 시대에 맞서 싸워나가면서 민족의 미래와 운명을 걱정하면서 참다운 인간의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인물들과 대조되어 한층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렇게 박종렬과 이진석, 장만춘이 반민족적 성격과 속물적 유형이라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각각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다른 성격으로 설정한 것은 한국과 같은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인물 유형을 그려 내려는 작가의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해방 조선이 갖는 특수성과 복합성을 드러내기 위한 작가의 깊이 있는 성찰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방공간 속 민족현실을 꿰뚫고 비판의식을 투영했던 염상섭의 통찰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3. 신식민지 도래 위험에 대한 경계

『효풍』의 가치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미국에 대한 비판의식과 경계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난 한반도는 이내 곧 미국이라는 새로운 지배체제 하에 놓이게 된다. 광복 이후 정치적 혼란과 무질서 속에 있던 한반도는 얄타회담(1945.2)에서 이루어진 비공식적 합의에 따라 소련과 미국의 점령을 받는다. 일제가 물러간 직후, 한반도는 다시 한 번 다른 국가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등장은 새로운 국가 건설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짐과 동시에 3년간의 또 다른 지배자로서의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기도 했다. 물론 미군정 수립의 목적은 일제 치하처럼 식민지 지배를 위한 것이 아닌, 한반도의 질서유지와 민주주의의 착종이었다. 그러나 자주통일국가 수립을 열망했던 염상섭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힘을 감지하였고 우리 민족이 제2의 식민지로 전락 될 수 있다는 경계의식을 피력하였다. 또한 한반도의 어지러운 상황에 대한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고 역설하며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염상섭은『효풍』내에서 미국인을 전면적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일제강점기 시대 염상섭의 작품에서는 일본인이 전면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과는 다르게 이 작품에서 미국인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염상섭이 제2의 식민지 시대를 경계함이 심각하다는 것을 짐작[9] 할 수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두 미국인, 베커와 브라운은 염상섭의 미국에 대한 경계가 투영되어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베커에 대한 평가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먼저 베

9) 김재용, 앞의 논문, 215쪽.

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베커가 혜란을 대하는 태도에서 엿볼 수 있듯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한 베커의 순수한 애정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혜란에 미혹된 다른 남성인 진석과 수만과는 달리 베커의 경우에는 진실한 사랑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언제나 신사적으로 그녀를 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에 흔들리는 혜란의 마음을 근거삼아 베커의 애정은 사심 없는, 순수한 것들로 규정하고 있다. 혜란이 베커를 바라보는 시선은 "교양 있는 청년이라 그렇기도 하겠지마는 사실 첫눈에 호감도 가진 것이요, 이야기에 어울리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 것이 안되어서 말을 걸어주는 친절도 있는"(『효풍』, 13쪽) 신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혜란과 베커의 관계를 순수하게 보기는 어렵다. 또한 베커라는 인물 자체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베커는 미국인이라는 점에서 사람 자체만 놓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미국인이라는 베커의 배경은 그들 스스로도 모르게 권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혜란이 끌린 것은 베커가 가진 남성적 매력도, 친절함도, 신사적인 면모도 아니다. 결국 혜란이 베커에게 흔들린 것은 베커 자체가 아닌 베커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이 가진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잠깐이나마 그녀가 흔들린 것은 베커 자체가 아닌 베커의 이면에 '미국'이 갖는 힘이었다.

> "미스 김! 나같은 속 모를 이국총각과 이렇게 둘이만 마주앉았으면 무서운 생각도 드시겠지? 허허허……." 하고 베커는 커다랗게 달뜬 웃음을 터뜨려 놓는다.
>
> "무서워요! 당신 나라 병정은 무서워요. 더구나 찻간에서는."
>
> 하고 혜란이는 풍유적(諷諭的)으로 이렇게 대꾸를 하며 웃다가,
>
>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의 젠틀맨은 믿습니다. 여자를 덮어놓고 존경하거나 애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인격을 아는 민주주의 국가의 신사를 나

는 존경할 줄 압니다.”

하며 엄연히 남자의 얼굴을 치어다보는 혜란이의 입가에서는 웃음이 스러졌다.

베커 청년의 얼굴에서도 실없어져 가는 표정이 스러지며 놀라는 기색과 함께 거북스러워하는 낯빛이 잠깐 떠올랐다.(73쪽)

시종일관 신사적인 태도로 혜란을 대하는 베커이지만, 혜란은 베커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베커의 마음이 어떠하든, 혜란에게 베커는 ‘미국인’일 뿐이다.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병직에게 향해져 있다. 다음 인용문은 베커와 혜란의 관계에 ‘미국’이라는 권력이 개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지참금 백만 원짜리의 신부를 만들어놓고 가겠다는 말에 혜란이는 다시 생각하였다. 욕기(慾氣)다. 그러나 터무니 없는 허욕은 아닐 것 같다. 베커는 일개 이름 없는 청년이다. 그러나 미국청년이다. 저 자신은 돈벌이를 못할지 몰라도 그만 권력을 가진 미국청년이다.(169쪽)

병직에게 지고지순한 순정을 보이던 혜란은 함께 미국 유학을 가자는 베커의 말에 흔들린다. 혜란은 이진석등과 같은 속물적인 성향을 보이는 인물은 아니다. 오히려 사상이나 현재의 상황에 개의치 않고 병직에게 끊임없는 신뢰와 애정을 보이는 인물이다. 혜란이 속물적이고 본인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인물로 형상화 되어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장면이다. 그러나 혜란은 시종일관 속물적 인물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들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인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한 혜란조차 베커의 말에 내적 갈등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청년’이라는 베커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미국과 미국인이 갖는 권력의 힘이 그녀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혜란이는 이 남자가 유학을 권고하기 전까지도 병직이와 약혼한 사이인 줄을 몰랐던가 — 그것이 알고 싶었다.

"나 하는 일에 오케이를 해야 할 사람이 아버지 밖에 또 있는 것은 어떻게 아셨어요?"

"벌써 전에 미스터 리 — 한테 들어 알았지요. 허나 실례의 말씀이지만."

베커는 말을 하다가 말고 뚝 끊는다. (…중략…) 베커를 보낸 뒤에 혜란이는 그 사람이 벌써 전부터 약혼한 줄 알면서 내게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해 보다가 어쨌든 병직이와 파혼이 되든지 복역을 하게 되든지 하면 유학은 가고 마는 것이란 말을 아니한 것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였다.(333쪽)

베커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근거는 또 있다. 위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커는 혜란의 약혼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권유했던 것이다. 미래를 약속한 정인(情人)이 있는 여자에게 그것을 포기하고 본인과 미국으로 가자고 권유한 것은 그가 자랑하는 신사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혜란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베커에 대해 거부감을 보인다. 그리고 유학에 대해 확답하지 않은 것을 안심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베커 또한 미국이 갖는 '권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권력으로 상징되는 베커라는 인물이 등장인물에게 크나큰 영향을 끼치고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지점이다. 미국인이 갖는 권력의 힘은 또 다른 미국인 브라운에게도 나타난다.

"참 그런데 브라운 씨가 왔다지? 좀 오시라구 해주겠소?"

하고 이른다.

"여쭈어 보죠."

하고 마담은 일어서려 한다. '여쭈어 보죠'란 브라운 같은 이 판에 세도가 당당한 미국신사가 장만춘이쯤 오란다고 올 것 같지 않아서 하는 말눈치다.

"아니 나하구 같이 가세."

> 진석이가 따라 일어선다. 진석이 역시 브라운이 와 있는 것을 안 바에는 쫓아가서 경의를 표하든지 모셔와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30쪽)

> 브라운의 부친은 한국시대부터 조선에 와서 운산금광(雲山金鑛)을 경영하던 한 시대 전 사람이었다. 한밑천 잡기도 하였지마는 끝판에는 결국에 총독부에 밀려 탄광은 삼정(三井)에 팔아넘기고 무슨 오일컴패니인가라는 석유회사 지점까지 치워버리고 조선을 떠난지가 칠팔 년 전 일이다. 그래도 아들만은 원체 조선서 자라났기도 하였고 아내가 남편보다는 본국서 정통으로 교육을 받은 여성으로서 미션스쿨에 교편을 잡고 있었던 관계로 좀 더 처져 있으면서 조그만한 무역상(貿易商)을 경영하던 것이나, 이 역시 전쟁 바로 전에 쫓겨갔던 것이다. (…중략…)
>
> 이 브라운 청년은 조선말을 잘하느니만치 미군을 따라 자원해서 온 것이지마는 이진석이와 연상약한 삼십여 세쯤 된 비즈니스 맨 타입의 정력가이다. 아무데도 소속은 없으나 조선 사정에 정통하니만치 어디를 가나 신임을 받고 은연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33쪽)

첫 번째 인용문에서 미국이 갖는 권력이 자연스럽게 미국인에게도 이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브라운을 대하는 진석과 마담의 태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브라운은 아무 소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크고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 명의 미국인이지만 해방공간 남한에서 미국인이라는 신분은 그만큼 권력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 민족과 비교해보았을 때 이는 결코 무시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인이라는 신분만으로 그가 다른 인물들에게 동경과 대상과 권력의 상징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미국과 미국인에 대한 염상섭의 인식은 병직의 말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다.

염상섭은 병직의 대사[10]를 통해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지닌 문

10) 염상섭, 위의 책, 113쪽.

제점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비판하고 있다. 병직의 비판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의 대 조선 정책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일제 시대에는 미쓰이에게 내맡겼던 것이죠? 이번에는 어떤 '미쓰이'가 옵니까?"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정책이 일제와 마찬가지로 조선을 경제적으로 지배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또한 미국이 민중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국내의 특정 정치 세력만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병직의 비판은 미국이 우리의 '조력자'가 아닌 일제와 마찬가지로 식민지 '지배자'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조선의 혼란스러운 현실은 "미국세력에게 추수하고 아부하도록 만든 것은 미국의 식민주의적 정책에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이 병직의 판단이자 염상섭의 판단이다.

해방 조선의 현실이 '진정한 해방'이 아니라 '일본과 다를 바 없다'는 박병직의 생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염상섭은 미군정체제 또한 식민지 상황의 연장선상으로 신식민지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베커와 브라운 등의 미국인들이 박종렬이나 이진석 등으로 표상되는 '서양사람들을 끼고 도는 모리배 간배들'과 결탁하여 군림하고 있는 해방조선의 현실은 일제 강점기와 본질적으로 변한 게 없기 때문이다. '해방기 조선의 현실'이 문화·경제적으로 미국이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는 새로운 식민지적 상황에 놓여있고, 이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11]이다. 염상섭은 이러한 위험성을 감지하고 경계하고 있었다.

4. 민족적 주체성의 발현

『효풍』속에서 민족적 현실을 등한시했던 반민족적 행태에 대한 비판

11) 김병구, 앞의 논문, 80쪽.

의식을 드러내고 민족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미국에 대한 경계의 식을 드러냈던 염상섭은 이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전망하는 처방의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염상섭이 제시하고 있는 처방의 키워드는 사랑과 이해를 통한 민족적 단결의 촉구이다. 그리고 진정한 독립을 방해하는 새로운 외세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민족적 주체성을 발현시켜 통일된 민족국가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염상섭이 생각한 민족의 갈등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랑과 이해였다. 『효풍』이 발표된 1948년에 쓴 염상섭의 다음 평론 「나의 소설과 문학관」(≪白民≫ 1948.10)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 文學을 通하여 藝術的 表現美를 通하여 萬人에게 주는 共感, 共鳴을 殺伐한 生活 鬪爭과 感情의 反撥을 融和함으로써 理解 一 사랑, 平和의 싹을 萬人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라 하겠다. 사람의 모든 努力이 終局에 노리는 바가 기쁘고 행복하고 和樂하게 意義있는 生을 自由롭게 營爲하고저 함에 있다 할진대 文學은 人生의 그 根本問題를 푸는 가장 眞摯한 努力이라 할 것이다. 文學의 意義라 할지 문학의 價値라 할지 하여간 文學의 本質을 이렇게 볼제 文學으로서 人生一代의 課業이라 한들 부족할 것은 없을 것이다.[12]

일제 강점기 '생활 투쟁'과 '감정의 반발'로 표상되는 그의 작가적 시선이 '이해', '사랑', '평화'의 단어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문학을 통해서 심어주는 것이 문학자의 인생일대의 과업이라 표현하고 있다. 같은 해에 발표된 평론에서 읽어낼 수 있는 무조건적인 배격이 아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에 조금 더 나아가 '용서', '사랑',

12) 염상섭, 「나의 소설과 문학관」(≪白民≫, 1948.10), 『염상섭 전집 12』, 민음사, 1987, 200쪽.

‘평화’까지 나아가고 있다. 다음과 같은 단어는 『효풍』을 포함해 이 시기 염상섭 문학작품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하다.

또한 염상섭에게 민족은 하나의 혈연공동체, 동질적인 언어공동체로서 정서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다. 염상섭은 ‘친족’과 ‘혈연’을 강조하는 ‘종족적 민족주의’를 강조한다. 이러한 사상은 해방공간의 첫 작품인 「解放의 아들」(≪신문학≫, 1946. 11)에서부터 시작해 동시대의 단편소설 「離合」(≪개벽≫, 1948. 1)과 「再會」(≪개벽≫, 1948. 8)까지 이어진다. 염상섭에게 민족은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 공동체・정서적 결합체이다.

『효풍』 또한 남녀 간의 사랑, 더 나아가 그들의 혼담을 중심으로 하는 서사가 전개된다. 신문연재소설의 특성상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남녀애정문제를 중심서사로 두었다는 주장[13] 또한 일리가 있지만 염상섭의 좌우 합작의 이념과 격변과 혼란의 시대에 쓰인 작품이기에 단순화제와 흥미유발 차원으로만 애정문제를 해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애정문제라는 이야기가 전경화되어 있고, 그 이야기의 바탕에 좌우익의 대립이라는 당대의 첨예한 사회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14]이다.

애정문제를 중심으로 서로 약혼한 사이에 있는 남・녀를 매개로 한, 두 가족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리고 서로 장래를 약속한 이 두 남녀 주인공이 여러 가지 방해물 — 작품 내에서는 주인공간의 기본적인 이념갈등, 오해로 인한 다툼, 집안의 반대, 미국 유학을 권하는 베커, 월북을 권하는 화순 등 —로 인해 이별의 위기를 겪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작품은 두 남녀의 결혼이 암시되는 것으로 결론이 이루어진다. 혈연을 바탕으로 한 염상섭의 민족개념에 빗대어 볼 때, 한가족의 결합은 민족적 결합으로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당시 남한의 현실

13) 서형범, 앞의 논문, 69쪽.

14) 조병도, 「염상섭 건국기(1945-1950) 소설의 이데올로기 연구」, 한국외국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102쪽.

즉, 좌·우파의 이념적 대립, 미군정의 정책에 의한 민족 분단 문제 등의 시대적 분위기를 '결혼을 앞둔 남녀 주인공'을 내세워 이를 재현한 것이다.

"미스터 베커 안심하시오. 당신은 내가 미스 최처럼 또는 조선사람 전체가 이북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요.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는 좌우익의 구별이 없이 함께 단결하였던 것을 당신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이요. 지금 미스 최가 말한 그런 점에 가서는 좌우가 없이 의견이 일치하거든요."(133쪽)

『효풍』의 병직과 혜란의 결합은 혈연으로서의 결합이다. 이들은 이데올로기문제와 애정문제등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결합을 하는 것으로 소설이 마무리된다. 염상섭에게 우리 민족은 하나의 혈연으로 이루어진 민족이며 그렇기에 민족 단결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로 뭉쳐야 함을 소설 속에서 가족의 문제로 환원시켜 주장하고 있다. 민족적 단결을 방해하는 불신과 증오, 이데올로기로 인한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염상섭이 생각하는 대안인 "마음의 삼팔선론"은 혜란의 대사를 통해 나타난다.

"당신처럼 '마음의 삼팔선'을 가지면 나 같은 진국도 기회주의자나 이중인격자로 뵈구 세상에는 화순이 같은 여자는 둘도 없이 보이시기도 할 거지마는 난 그 '마음의 삼팔선'에서 초월할 수가 있거든요."(191쪽)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정세가 어떠니 미소(美蘇) 세력이 어떠니 자 — 이데올로기다 이념이다 하고 떠들지마는 내가 무식해 그런지 세상일이 주먹다짐으로만 되는 게 아니요 사람이 이론의 기계가 아니고 인간생활이 이론대로 되는 게 아닌 바에야 이론이나 이념보다도 먼저 감정과

의지의 힘이 움직이는 것이요. 일의 성패가 여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삼팔선을 처음부터 이론으로 세운 것은 아니겠죠? (…중략…)

"그러나 대관절 내 삼팔선은 언제나 터지려는지?……."

진석이는 또 한참 만에 다시 실없는 어기로 웃는다.

"에? 댁이 이북이시던가요?"

혜란이는 모른 척하려다가 돌려다 보았다.

"아니 삼팔선은 도처에 있거든요! 이렇게 책상을 나란히 놓고 눈에 안 뵈는 삼팔선 – 감정과 의지를 막아내는 삼팔선은 가루 놓였더든요." (229~231쪽)

혜란의 표현대로 삼팔선은 도처에 놓여 있다. 일단 선행되어야 하는 일은 마음속에서 삼팔선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의 삼팔선은 이데올로기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생겨난 불신과 증오의 감정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삼팔선은 우선 우리끼리 부터 감정을 정상적으로 완화하려는 열성만 있으면 뚫릴 것이라는 혜란의 대사는 우리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의 삼팔선'을 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혜란'이다. 앞서 살펴본 염상섭의 평론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사랑', '용서'를 꼽았다. 이러한 사상에 가장 부합되는 인물이 혜란인 것이다.

『효풍』에 등장하는 인물 중 시종일관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인물 또한 혜란이다. 결과적으로 병직과의 갈등을 극복하고, 주변의 모든 장애물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병직과 화해로 종결된다는 것 또한 작가의 이념이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다른 인물과는 다르게 혜란의 심리묘사를 유독 정밀하게 하고 있다[15]는 것 또한 염상섭이 혜란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와 사랑으로 이데올로기를 초월하고 민족적 단

15) 염상섭, 위의 책, 303쪽.

결을 도모해 통일된 민족국가를 수립하는 것임을 보여준 나타냈던 염상섭은 이 지점에서 또 한 가지 강조하는 바를 드러낸다. 바로 외세의 억압에서 완전히 벗어나 우리 민족이 주체적으로 통일국가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염상섭의 사상이 투영된 인물이 병직이라는 것은 여러 연구자가 동의하는 바이다. 그의 정치적 입장에서 전제되는 것은 외세의 주도하에 조국이 분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외세에 빌붙는 어떤 태도도 용납되지 않으며 또한 우리 민족 내부의 분열을 초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작품속에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병직의 대사(115쪽)들은 외세에 빌붙는 세력에 대한 염상섭의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병직이 외세에 붙지 않고 민족적 자결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 통일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자신의 길을 혜란의 아버지에게 말하는 장면은 많은 연구에서 주목했던 이 소설의 가장 문제적 장면(335쪽)이라 할 수 있다.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온 뒤, 생각을 정리한 병직이 혜란의 아버지와 대면하는 장면에서 병직은 그간의 정치적 입장과 애정문제에 대한 방황과 갈등을 정리하고 혜란을 선택한다. 혜란 역시 잠시 베커에게 흔들렸지만 병직에게 변함없는 애정과 신뢰를 보이며 그간의 모습을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한다. 각각 소련과 미국에 흔들렸던 남녀 두 주인공의 재결합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외세의 영향에서 벗어난 혜란, 민족적 분열을 야기하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병직, 이 둘의 재결합은 주체적 민족의식의 발현과 이를 통일국가건설에까지 끌고 나아가야 한다는 염상섭의 의식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병직의 목표는 조선에 살며 삼팔선이 터진 완전한 해방을 실현할 방도를 찾는 것이다.

"흠…… 무슨 공부를?"

하고 노려본다.

"우선 삼팔선이 어떻게 하면 소리 없이 터질까 그것부터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소리라니? 대포 소리 말인가?"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세계가 한데 살 방도가 필시 있고야 말 것이니까 그 점을 연구하렵니다."

"허허허 어서 가서 공부하고 오게."(336쪽)

병직이 말한 두 세계가 한데 살 방도를 찾는다는 것은 이념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 인식의 밑바탕에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 구도가 깔려있다. 우리 민족이 두 세계가 된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닌 외세의 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외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 통일된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첫 번째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삼팔선'으로 상징되는 남북 분단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밝힌 미군정에 대한 불신, 비판적 이데올로기 수용에 대한 경계, 이것들은 모두 외세의 힘을 뜻하는 것이다. 민족적 주체성을 발현시켜 이 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염상섭의 주장이다.

여기서 염상섭의 숨은 의도를 발견해 낼 수 있다. 민족적 주체성을 발현시켜 통일된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염원을 밝히는 지점에서 그것을 수행해야 하는 이들은 바로 병직과 혜란으로 대표되는 젊은이들이라는 점이다. 염상섭은『효풍』내에서 기성세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은 곳곳에서 발견된다.『효풍』에 등장하는 기성세대로는 병직의 아버지 박종렬, 혜란의 아버지 김관식, 혜란의 옛 스승이었던 장만춘 등이 있다. 혜란의 아버지 김관식은 작품에 등장하

는 속물적인 인물들과는 달리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절개를 지키는 인텔리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기성세대 인텔리를 대표하는 김관식을 바라보는 염상섭의 태도는 긍정적이지 않다.

> "참 그런데 자네 아버지 요샌 무얼 하시나?"
> 혜란이가 자기 생각에 팔려서 아무 말도 없이 앉았는 것을 보고 장만춘이는 말을 돌린다.
> "대학에 일주일 몇 시간 맡으신 것 나가 보시는 외에는 집에 들어앉으셔서 책이나 보시고 약주나 잡숫죠."
> "허허 그거 팔자 좋으시군!"
> "그나마 한참 그 법석을 하던 스트라이크가 잠잠해지니까 학생들은 먹을 것이 없어 잘들 안 나오구 추워지니 석탄은 없구 아버지께서는 그저 화만 내시면서 약주만 잡수리려 드시구……."
> 하고 혜란이가 눈살을 짜붓하는 것을 보고, 장선생은 허허허 하고 그럴것이란 뜻인지 모든 것이 기가 막힌다는 생각인지 호걸풍의 웃음을 터뜨려 놓는다.(17～18쪽)

세상을 등지고 화만 내며 술만 마시는 김관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혜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김관식 또한 미국에서 영문학을 공부한 '영어'를 무기로 가지고 있는 인텔리이다. 그러나 여타 다른 '영어'라는 무기를 가진 이들과는 달리 대학에서 몇 시간 강의를 맡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는 앞선 속물적 인물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지식인으로서의 긍지와 절개를 지키는 긍정적 인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김관식은 현실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것에 그쳤다는 점에서 소극적 인텔리의 양상을 보여주는 인물유형으로 규정할 수 있다.

기성세대와 더불어 염상섭은 기존의 사회 체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치운동의 청년단도 본래의 취지를 잃은 지 오래이다.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정치'이다. 그리고 그 정치운동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청년단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염상섭이 바라보는 현재 정치운동의 청년단은 부정적이다.

> "XX단에서 왔습니다. 성냥을 두 갑만 사주십사고 왔는뎁쇼……."(…중략…)
> "그거 한갑에 얼마요?"
> "십오원씩 합니다." (…중략…)
> "아무려면 청년단 자체가 성냥장사야 하겠습니까."
> 청년이 한마디 변명 삼아 한다.
> "그야 그렇겠지마는 아무 청년단이든지 청년단의 이름만 팔면 일반시민이나 가정 부인이 위협을 느끼고 무슨 무리한 청이라도 들으리라고 생각하게끔 된 이 분위기를 생각해 보라는 말이요."
> 영감은 더 꼬장꼬장해진다.
> "그래 아무리 실직자가 범람하는 때이기로 범강장다리 같은 싱싱한 젊은 놈들이 조그만 성냥갑을 들고 다니며 강매(强賣)를 해야 옳단 말요? 청년단원이거나 아니거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퍼런 젊은놈이 계집애한테 돈 십원 — 지금 돈 십원이라야 일전 셈 아니요! — 그 일전을 받아들고 머리를 숙이고 나가야 옳단 말요? 청년의 기골(氣骨)이니 기상이니 하는 것은 말 말고라도 그런 것은 소위 지도자의 노예로 부려먹기에는 똑 알맞을지 모르지만……말세요, 말세야!"(133쪽)

현재 작품 내에서 청년단은 성냥이나 팔러 다니는 모리배와 다를 바 없는 부류로 표현되고 있다. 사회를 개혁하는 데 앞장 서야 할 "싱싱한 젊은이"들이 "조그만 성냥갑을 들고 다니며 강매"를 하며 머리를 숙이고 다닌다는 것에 대해 노골적인 부정적 시선이 느껴진다. 깨어있어야 할 젊은이들이 기득권세력의 노예로 전락해 그들에게 '부림'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이다. 기성세대와 기득권세력, 기존 체제에 대한 반감의 표현은 염상섭이 새로운 인식을 가진 젊은 계층의 각성에 대해 염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염상섭의 인식이 투영되는 인물이 병직과 혜란임은 이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효풍』에 드러나는 염상섭의 바람은 결국, 기존 체제와 기성세대에 대해 젊은 계층의 분발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민족적 주체성을 발현시켜 외세의 개입을 물리치고 통일된 민족국가를 설립하기 위해 앞장서야 하는 이들도 젊은 계층이다. 병직과 혜란으로 대변되는 의식 있는 젊은 계층들이 이 염원을 방해하는 모든 이들 — 반민족적 행위를 양심의 가책 없이 행하는 모리배들, 이데올로기의 폭력성을 통해 우리를 지배하려는 외세들, 여기에 빌붙으려는 속물적 가치관의 인물 유형들, 이데올로기에 침식된 무비판수용자들 — 에 맞서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행동화해야 한다는 이념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5. 결 론

해방공간의 작가들만큼 국가와 민족의 주체적인 구성과 통합의 문제를 자의식적으로 사고했던 경우는 많지 않다. 이 지점에서 많은 작가들은 단편소설의 형식을 빌려 이와 같은 내용을 드러내고자 했다. 해방공간의 남한 작가들은 제대로 된 장편소설을 완성하지 못했던 것이다. 혼란스러운 현실 상황을 동시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장편소설 속에 투영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염상섭은 장편 소설인『효풍』속에서 당시 시대의 사회 문화적, 시대적 삽화들을 그려내고 있다. 동시대를 통찰하여 이를 단편소설이 아닌 장편소설에 투영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시련을 견디며 장편소설을 쓸 수 있는 긴 호흡과 시

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작품의 문학적 성취를 넘어 해방공간 작가로서 한 시대 전체와 맞서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염상섭은 당시 시대의 일상을 재현하고 시대상을 알려주는 지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작가의 시대적 인식과 이념적 지향,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담아냈다. 작품이 연재되고 있던 시기에 이미 남북한은 각각의 정부를 수립하여 분단국가가 되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데올로기의 대립에서 벗어나 민족의 단결을 촉구하고 외세의 억압에서 벗어나 통일된 주체적 민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작가의 지향을 충분히 담아낸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해방 정국의 혼란스러운 우리 민족의 상황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작품의 가장 큰 의미가 될 것이다. 진정한 리얼리즘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세부적 진실성의 재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망의 단계에까지 다가서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효풍』은 리얼리즘의 미학에 접근한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염상섭은『효풍』속에서 해방공간 속 민족 현실을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해방공간의 우리 사회에서 있을법한 인물들을 창조해 내고, 그 과정에서 결코 겹치지 않는 개성적 인물들을 유형화하였다. 비슷한 유형의 인물일지라도 각각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다른 성격으로 설정한 것은 한국과 같은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인물 유형을 그려 내려는 작가의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해방 조선이 갖는 특수성과 복합성을 드러내기 위한 작가의 깊이 있는 성찰에서 나온 것으로 염상섭의 통찰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민족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걱정 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물군은 시대에 맞서 싸우며 민족의 미래와 운명을 걱정하면서 참다운 인간의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인물들과 대조되어 한층 두드러지게 나타

난다. 또한 등장인물의 개인적 욕망 또는 사회적 이념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일면적 시선을 고집하기보다는 그러한 현실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면서 객관적인 관찰의 시선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또한 인물들의 첨예한 갈등과 치밀한 심리묘사로 인한 극적 긴장감 전개는 사회의 단순한 객관적 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서사적 장치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염상섭은『효풍』에서 남한의 사회체제 유지와 안정을 위해 주둔한 미군정에 대한 비판의식을 투영했다.『효풍』의 가치에 대해서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 하나인 미군에 대한 비판의식은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있던 우리 민족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제2의 식민지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던 염상섭은 작품 내에 이를 반영하였다.

염상섭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지점에서 민족적 단결을 촉구한다. 염상섭의 민족개념은 '친족'과 '혈족'을 강조하는 '종족적 민족주의'이다. 이러한 민족의식 아래, 하나의 민족임을 주장하였고 민족끼리 단결해야 한다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 민족의 단결을 저해하는 모든 방해물을 극복하고 주체적 민족의식의 발현을 통해 통일된 민족국가 설립을 열망하는 것을 작품 속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효풍』의 평가가 절하되고 있는 이유는 다양하다.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작품 결말에 대한 아쉬움, 중심 서사로써 연애담이 갖는 한계, 통속적인 내용 등의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를 갖게 된 원인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노선이 가지고 있던 분명한 지향점과 구심점의 부재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효풍』이 갖는 문학사적 의의와 염상섭 개인에게 갖는 작품의 의미는 그의 작품 전반에 대한 연구에 활력을 넣어줄 것이라 기대한다.『효풍』의 문학사적 의의를 재조

명함과 동시에 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작품내적인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효풍』의 본격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식민지 시대에 치우쳐 있는 염상섭의 작품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부여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편소설이 부재한 해방공간의 우리 문학사를 한층 풍요롭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자료

염상섭,『염상섭 전집』, 민음사, 1987.
_____,『효풍』, 실천문학사, 1998.

2. 단행본

권영민,『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2011.
김경수,『염상섭 장편소설 연구』, 일조각, 1999.
김윤식,『염상섭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김종균,『염상섭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74.
_____,『염상섭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9.
민족문학사 연구소 편,『새 민족문학사 강좌』, 창작과비평사, 2009.

3. 논문

김경수,「염상섭 단편소설의 전개과정」,『서강인문논총』21집,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07.
김동현,「염상섭 소설연구: 해방후 작품에 반영된 작가의식의 변모양상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김미영,「염상섭 소설 미학의 성립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김병구,「염상섭『효풍』의 탈식민성 연구」,『현대소설연구』18집, 한국현대소설

학회, 2003.
김승민,「해방 직후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만주 체험의 의미」,『한국근대문학연구』16집, 한극근대문학회, 2007.
김재용,「염상섭과 민족의식 -『삼대』와『효풍』을 중심으로」,『염상섭 문학의 재조명 - 염상섭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논문집』, 문학사와비평연구회, 1998.
_____,「염상섭과 민족의식」,『염상섭 문학의 재인식』, 깊은샘, 1998.
_____,「8.15 이후 염상섭의 활동과『효풍』의 문학사적 의미」,『효풍』, 실천문학사, 1998.
김정진,「『효풍』의 인물 형상화와 그 기법」, 김종균 편,『염상섭 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8.
배하은,「해방기 염상섭 소설의 탈식민적 현실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서형범,「염상섭『효풍』의 중도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고찰」,『한국학보』30집, 2004.
안미영,「염상섭의 해방직후 소설에서 '민족'을 자각하는 방식과 계기」,『한국언어문학』68집, 한국언어문학회, 2009.
염형운,「해방 후 염상섭 단편소설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이민혜,「해방기 직후 염상섭 소설 연구 : 1946-1949년 작품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이병순,「염상섭 후기 소설 연구」,『국어국문학』110집, 국어국문학회, 1993.
이종호,「해방기 이동의 정치학 - 염상섭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한국문학연구』36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장진선,「염상섭『효풍』의 여성인물에 관한 연구 : 제3세계 페미니즘적 관점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정호웅,「냉소와 풍자 -『효풍』」, 김종균 편,『염상섭 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8.
조남현,「1948년과 염상섭의 이념적 정향」,『한국현대문학연구』6집, 한국현대문학회, 1998.

조병도,「염상섭 건국기(1945-1950) 소설의 이데올로기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조영미,「염상섭 해방이후 단편 소설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조형래,「『효풍』과 소설의 경찰적 기능 - 염상섭의『효풍』연구」,『사이』3집,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7.
최진옥,「해방 직후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민족의식 고찰」,『한국현대 문학연구』23집, 한국현대문학회, 2007.

이 논문은 2014년 4월 30일에 투고되어 2014년 5월 14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4년 5월 15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국문초록>

염상섭 장편소설『효풍』연구

강 영 훈

본 논문은 염상섭 장편소설『효풍』에 드러난 염상섭의 현실인식과 비판의식, 시대의 진단과 앞으로의 전망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염상섭 작품에 대한 기존 연구는 그 시기와 작품이 편향되어 있으며 해방공간의 작품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존 연구의 재검토를 위한 작업으로 해방공간 작품 중 유일한 장편소설인『효풍』을 연구함으로써 이를 해명해보고자 한다.

염상섭의 시대인식과 이념적 지향은『효풍』속에 반영되었다. 먼저 그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반민족적 행위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박종렬, 이진석 등과 같은 세속적인 인물들과 민족의 현실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관심보다는 본인의 이득만을 취하는 인물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비판의식을 드러냈다. 해방 이후 남한을 지배하고 있던 미국의 정책은 이데올로기에 대해 일관적이지 못하였다. 경제정책 또한 실패해 민중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미국에 대한 비판의식과 함께 그들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한 경계가『효풍』에 투영되었다. 미국이 또 다른 식민지 지배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피력함으로써 제2의 식민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경계의식을 확고히 드러내고 있다.

염상섭은『효풍』에서 민족의 단결을 저해하는 모든 방해물을 극복하고 주체적 민족의식의 발현을 통해 통일된 민족국가 설립을 열망하고 있다. 민족의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먼저 견지해야 함을 강조한다. 동시대의 평론에서 그는 문학자는 '용서'와 '사랑',

‘평화’의 시선으로 작품을 창작해야 하는 것이 일생일대의 과업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성세대와 기존의 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젊은 세대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시종일관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혜란의 가치관과, 염상섭의 사상이 직접적으로 투영된 병직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효풍』은 해방공간의 유일한 장편소설이자 당시 현실을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는 작품이다. 세부적 진실성의 재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진단과 처방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리얼리즘의 미학을 이룬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동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로서 다양한 인물군상을 현실의 전체적 연관 속에서 그려냈다는 점은 염상섭의 작가적 역량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염상섭이 지향했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노선이 가지고 있던 한계인 분명한 지향점·구심점의 부재로 결말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본 연구에서 밝혀낸『효풍』의 심도 있는 분석은 작품이 갖는 문학사적 의의와 염상섭 개인에 갖는 작품의 의미를 규명하고 그의 작품 전반에 대한 연구에 활력을 넣어줄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해방공간,『효풍』, 민족주의, 시대인식, 이념적 지향, 리얼리즘

<Abstract>

A study on the Yeom Sang-seop's full-length novel, *Hyopung*

kang, Yeungh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Yeom Sang-seop's recognition of the reality and criticism appearing in *Hyopung*, Yeom Sang-seop's full-length novel, and grasp his diagnosis of the age and the future. Typical researches on Yeom Sang-seop's works were biased in the aspects of time and works, and negative evaluations of his works related to liberated space were dominant. This study, for reevaluating these typical researches, intends to elucidate these negative evaluations by examining *Hyopung*, the only full-length novel among his works related to liberated space.

His recognition of time and ideological intention that can be found in his critiques, press activities, and behavioral practices are reflected in *Hyopung*. First, he criticizes antinational behaviors through characters in the work. He showed his criticism by negatively describing earthly characters such as Park Jong-ryul and Lee Jin-seok, and those who do not have worries about or interests in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people but only seek their own benefits.

The policies of the U.S. that dominated South Korea after liberation were not consistent in the aspect of ideology. Economic policies also failed, making lives of people difficult. Criticism on the U.S. along with vigilance against their 'power' were reflected in *Hyopung*. He had crisis consciousness that the U.S. could be another ruler, and responded to 'English', the language of the new ruling force.

In *Hyopung*, Yeom Sang-seop desires to overcome all the obstacles that hinder

unity of people, and establish united national state by manifesting independent national consciousness. He is giving a negative view to the old generation and the existing system, urging awakening of the young generation for establishing a new state. He is emphasizing this thought through value of Hye-ran who is described positively throughout the work, and Byung-jik to whom Yeom Sang-seop's thought is directly reflected.

Hyopung is the only full-length novel related to liberated space, generally reflects the reality of his age, and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 for us. It is a work that realizes the esthetics of realism, diagnosing and prescribing the reality, not just stopping at reproducing detailed truth. And that Yeom Sang-seop, as a contemporary writer, drew various characters in the interrelationship of the reality shows his ability as a writer. Of course, the limitation of his nationalistic thoughts, absence of clear direction and pivot, leads to somewhat regretful conclusion. However, the study results of analyzing *Hyopung* in depth are expected to help reestablish the literary/historic meaning of his works and himself, and vitalize researches on his works in general.

key words: liberated space, *Hyopung*, nationalism, recognition of time, ideological intention, realism